

무안 청계 농공단지 '도자복합산업특구' 조성

중기부, 지역특구 지정...2028년까지 86만3천㎡ 규모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제품 판촉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특화사업

무안 청계 농공단지에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가 조성된다.

무안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도자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도자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열린 55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청계 농공단지 일원을 지역특화발전 특구인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는 청계 농공단지 일원에 86만3000㎡의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23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무안군이 '도자 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3개 분야 12개 특화사업을 벌인다.

무안 도자 산업 기반 조성, 산업 활성화, 도자 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분야이다.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도자 공용장비 구축, 전문 판매장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 원료 표준화, 제품

개발·판촉 지원, 도자산업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이 있다.

앞으로 이들 12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고용 창출,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이로 인해 4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9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61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지역특구제도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김산 무안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호소했다.

그는 무안에 형성된 전국 최대 생활도자 집적단지(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무안 도자 명품화와 높은 가치로 지역경제에 활력



김산 무안군수가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을 불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무안 도자의 옛 명성을 되찾고 무안 도자의 가치를 높이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동절기 위기 가구 발굴 완도군, 내년 1월 20일까지

완도군이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기 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 가구, 계절적 요인(난방·의료비 등) 긴급 구조자 등 복지 위기 가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계층 등이 발굴 대상이다.

내년 1월 20일까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 분야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위기 가구에는 탄소 온열매트, 생계비, 양곡 및 밀키트 등을 지원한다.

긴급 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자원을 우선 지원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 연계·통합 사례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해 관리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첫 시범양식 개체굴 이달 중순 출하

화산 중마도에서 그물망 양식 내수·중국 수출용 61t 수확 예정 친환경 고소득 품종 추가 기대

개체굴(날개 굴) 양식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남군이 이달 중순 출하를 앞두고 있다.

해남군은 화산면 중마어촌계와 신소득 품종으로 양식 개체굴을 선택해 6개월간 시범 양식을 진행했다.

화산 중마도는 해남군의 대표적인 섬인 삼마도(삼마·중마·하마도)의 한 곳이다. 다도해의 정경 바다에서 김과 전복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개체굴은 여러 개체가 덩어리로 자라는 일반 굴보다 껍데기 하나에 한 개체만 자라도록 채종(그물망) 속에서 키우는 양식 굴이다.

알맹이만 판매하는 알굴과 달리 껍데기째로 판매해 껍질 벗기기 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다른 굴보다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두 배 정도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또한 수출을 위한 고소득 품종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은 화산 중마도 일원에 지난 5월 76만마리를 처음 입식했다. 이후 채종 수확식을 적용해 양식에 성공했다.

채종 수확식 양식은 따로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 바다 부영양화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고수는 피해에 따른 폐사율도 낮아 개체굴 양식의 가장 적합한 양식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남군 개체굴은 현재 100g까지 성장했으며 생



명현관 해남군수가 최근 화산 중마어촌계 개체굴 양식장을 찾아 수확 현장을 점검했다. <해남군 제공>

존율도 80%를 기록했다.

해남군은 올해 61t의 개체굴을 수확할 예정이다. 이들 굴은 국내 판매하거나 중국에 수출될 계획이다.

kg당 3500원을 받는다고 치면 약 2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해남군은 내다봤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30일 화산 중마어촌계

개체굴 양식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명 군수는 "중마어촌계의 성공적인 개체굴 양식으로 김과 전복 외에도 고소득 양식품종을 추가하게 됐다"며 "친환경 개체굴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고소득 어업 소득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용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문화라운지'에서 지역 작가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 행정복지센터, 갤러리 됐다

9개동에 '문화라운지' 조성...내년 2월 29일까지 전시

목포시는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화라운지'를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목포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된 곳은 용당1동, 연동, 대성동, 동명동, 죽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주동 등이다.

문화라운지에서는 '테이크 플레이스'라는 주제로 내년 2월29일까지 목포시립미술관이 소장한 목포지역·출향작가 60여 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는 앞으로 이 공간을 시민들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공유의 장소로 꾸릴 예정이다. 동네에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변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가 목포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이자, 여향 목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 덕진면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들어선다

국비 등 200억 투입 유리온실 10동 조성...3년 임대 후 3년 재연장 가능

영암에 200억원 규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선다.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에 영암군이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돼 200억원(국비 1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3년간 임대 후 평가 등을 거쳐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을 신청한 10개 사도(시군)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영암을 포함해 충남 서산, 경북 예천 등 3개소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영암군은 사업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해 있어 관리와 영농기술 제공이 용이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의 최적지로 꼽혔다.

덕진면 장선리 일원에 2026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4.3ha)과 지원센터, 선별장 등이 조성된다.

재배 품목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소비 수요가 높은 딸기, 토마토, 샐러드용 엽채류, 파프리카 등이 다.

스마트팜에는 생산량 증대와 작업 효율성, 재배 작목 전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리온실 10동이 들어선다.

우승형 영암군수는 "청년이 첨단기술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영암형 스마트팜 모델'로 농업과 농민이 새로운 희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줬다"며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동시에 농업으로 지방소멸과 기후위기가 극복해내는 전국 모범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 금정 뱅뱅이골에 어린이 야영장 조성

2025년 착공...기찬랜드 휴장

영암 금정 뱅뱅이골에 어린이들을 위한 야영장이 들어선다.

영암군은 최근 금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금정뱅뱅이골 산림욕장 기본계획 변경·야영장 조성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금정면 마을 이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금정뱅뱅이골 산림욕장은 오래된 시설과 용수 공급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정뱅뱅이골 산림욕장 기본계획 변경·야영장 조성 기본계획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한 야영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뱅뱅이골 일대를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영암군은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기본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영암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부 공모사업 등을 신청해 오는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정면 연소리의 '물놀이 명소'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올해를 끝으로 2~3년에 걸친 휴장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이곳은 물놀이장 용수를 공급하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시설물이 오래된 탓에 대대적 보수 공사를 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뱅뱅이골 야영장은 영암의 새로운 대표 명소로 금정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자세한 사업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광군 산불예방 캠페인

영광군이 최근 불갑면 불갑산 일원에서 산불 예방 홍보를 벌였다.

홍보에는 영광군 산림공무원과 직원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산불 예방 캠페인은 입산객들에게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불갑산 등산객들에게 산불 예방 실천 등 홍보 안내문과 홍보물을 나눠줬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풍철 많은 사람이 산에 찾아와 입산객 실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



영광군 산림공무원과 직원들이 최근 불갑산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사라질 수 있으니 산불 예방에 모두 동참해 주고 입산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정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15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진도군이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5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가격(30점) ▲위생·정결(20점) ▲공공성(5점)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4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소재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군민에 소매단위로 물품과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다.

착한가격 신청메뉴가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

는 업소, 프랜차이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착한메뉴판 제작 설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소모품 지원 ▲행정안전부 및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는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061-540-607)로 하면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